

KLPGA 임원(이사) 입후보 출마 포부서

안녕하세요.

2023년도 이사직에 출마한 309번 홍진주입니다.

저는 2003년 입회하여 KLPGA대회는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에서 수많은 대회를 하며 선수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경기에만 집중하는 선수인 회원이었지만

지난 이사 임기(19년-23년)에는 KLPGA투어 뿐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업무수행을 보면서 배운것도 많았고 실망을 금치 못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수년 전부터 얘기해오던 선수들의 권익보호 라던지

회원들의 복지 연금 문제등은 아직도 개선 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선배님들 앞에서 제 의사를 소리내서 말할 수 있는

이사, 후배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단점만 보면서 큰소리내며 싸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단점의 이면에도 분명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 협회도 그렇습니다.

칭찬 할 것은 칭찬하고 그릇된 것은 빨리 버려야 발전 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의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이사로서의 4년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KLPGA를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23년 3월 5일

성 명 :

홍진주

